

# “기적의 바다 경험하세요”...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오늘 개막

### 13일까지 3일간 고군면 회동리~의신면 모도리 사이 2km 유명가수 대거 참여 전야제·송가인 출연하는 개막식도

대한민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이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명예문화관광 축제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길이 2km, 폭 30-40m의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한 바닷길 체험과 진도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있다.

‘봄의 시작, 신비의 바다에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진도군이 주최하고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한다.

군은 축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축제장의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최근 축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교통관리, 안전 등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또 깨끗하고 쾌적한 축제를 위해 축제가 열리는 회동리 일원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어구 정리 등을 실시했다.

축제일 전날 펼쳐지는 축하공연과 함께 3일간 열리는 축제는 54종의 다양한 전시·공연·체험행사와 둘째날은 전국노래자랑 녹화방송이 함께 진행돼 진도군민 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진도읍 철마공원에서 조항조, 강진, 우연이 등 유명가수가 대거 출연하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11일 개막식은 화관무와 진도북춤을 시작으로 오후 3시에는 진도 출신 국민가수 송가인씨가 특별출연해 축제장의 흥을 한껏 달굴 예정이다.

진도 전통의 진도 씻김굿, 다시래기, 남도

들노래, 진도북놀이 공연 등 다양한 공연행사와 진도 문화 체험 마당, 뽕합머니 소망연 만들기, 소망의 도자기 빚기 체험 등의 체험행사,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기자랑과 울금막걸리 마시기 대회 등의 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축제 첫날 열리는 관광객 44쌍의 참여로 열린 바닷길 만남 ‘견우와 직녀’ 사랑의 대회는 연인, 친구의 사랑고백과 꽃다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행사 관계자는 최고의 연인 5쌍을 선정해 금반지 1돈을 증정한다고 전했다.

특히, 바닷길 햇불 행진과 3일 연속 열리는 바닷길 북함매체(멀티미디어) 레이저 불거리, 바닷길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매체예술(미디어아트) 등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뽕합머니 분장 공연과 환경보호를 위한 ‘바다를 살리자’ 쓰담달리기(플로깅) 운동 등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다하고 있다”며 “기적의 바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장을 찾는 가족, 친구, 연인 모두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시각은 ▲11일(월) 오전 5시 50분과 오후 6시 20분 ▲12일(화) 오전 6시 40분과 오후 7시 ▲13일(수) 오전 7시 20분과 오후 7시 40분으로 예측하고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 해남군 “주민 고충 듣습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민원 상담

해남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2024년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6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운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연간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분야별 국민권익위의 전문 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이다.

이날 행사장에는 해남군민을 비롯한 인접 완도, 강진, 영암 군민들도 참여하여 그 간 겪

고 있는 불편사항 등을 토로하며 해법을 찾아가는 민원상담으로 뜨거운 현장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해남군 행사에는 올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추진한 치러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상담 건이 몰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국민신문고에는 복지, 노동, 농업, 환경, 주택건축, 생활법률 등 다양한 분야 46건이 현장민원으로 접수되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관들은 민원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쳤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 청자축제기간 강진사랑상품권 이벤트 효과 ‘톡톡’ 투자 대비 6배 소비 촉진...축제장과 읍내상권 원원

강진군은 ‘제52회 청자축제’ 기간동안 물품 등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청자축제장과 강진읍시장에서 실시한 강진사랑상품권 나눔 이벤트 배부액이 1억 6천 3백만원에 불과해 9억 6천만원의 실질적인 소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축제 기간인 10일 동안 당일 소비한 카드 영수증 금액에 따라 5만 원 이상 20만 원까지 소비액의 20%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로, 1인당 1회 참여로 제

한되었으며,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이용 영수증은 제외됐다.

축제기간인 열흘간 5,775건의 참여가 이뤄졌으며, 배부액은 1억 6천 3백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청자축제장이 6천 2백만원으로 38%, 강진읍시장은 62%인 1억 1천만원으로 축제장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 축제 시기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강진읍내 상권 활성화에 효과 노릇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이다.

이벤트에 참가한 소비자들의 영수증 지출액

합산 결과 9억 6천만원이었고, 이는 배부액 1억 6천 3백만원의 6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투자 대비 실질적 경제 파급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역별 통계를 살펴보면 강진군민 52%, 전라(강진제외) 22%, 광주 13% 순으로 강진군민과 인근지역의 관광객 참여 비율이 높았다.

영수증 소비처 분석 결과, 1위는 단순구매(식품, 물품 등)가 28%, 2위는 식당 24%, 3위는 도자기 구매 23%가 차지해, 축제 봄을 축제장에서 강진읍까지 연결시키고 나아가 청자축제의 대표 상품인 도자기 구매가 빅3에 올랐다는 점은 성공한 지역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명해냈다는 분석이다.

강진=김영일기자

## 장흥군, ‘천관산 허그벨트 조성’ 사업 추진 박차 이천영 부군수 주재로 관련 7개 부서 부서장 및 팀장 참석

장흥군은 7일 부서 합동으로 ‘천관산 도립공원 허그벨트 조성사업’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지난해 8월 1일 전라남도도와 체결한 ‘천관산 도립공원 허그벨트 조성협약’의 후속행정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회의는 이천영 부군수 주재로 관련 7개 부서 부서장 및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천관산 도립공원 발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발표와, 각 부서간의 의견교환, 협조사항 공유 시간을 가졌다.

장흥군은 올해 3분기 이전까지 기본계획 수

립을 마무리하고 군관리계획과 공유재산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행하기로 했다.

선진지 답사, 전문가 자문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천영 장흥군 부군수는 “모든 부서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해 천관산 허그벨트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